열린 충남-pdf용 2006.8.3 9:23 AM 페이지185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볏가리마을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관리에 있는 전통테마마을로 대전에서 약 200km에 이르는 먼 거리로 지리적으로는 태안반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서산시와 연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안면도, 북쪽으로는 경기도 덕적군도에 가까이 있다. 동쪽을 제외하고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써 국내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내륙은 저 산성 구릉지로서 많은 산지가 개간지로 개발되어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은 만곡이 심하여 간척지가 잘 개발되어 있다. 볏가리마을도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진 논과 밭 그리고 간척지, 바다와 갯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볏가리마을의 자연경관 중 으뜸은 구멍바위이다. 신기하게도 해변가 절벽에 터널처럼 구멍이 뚫린 구멍바위를 지나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각자의 소원을 빈다.

볏가리마을의 전통테마 가운데 유독 소원과 관련된 주제와 장소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볏가리마을 바닷가로 가려면 소원의 숲 산책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가면서 야생화를 관찰하며, 울창한 소나무 숲 산책로를 통과하면 구멍바위로 이어지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다. 숲의 아름다움과 바다의 아름다움이 합쳐

더욱 멋진 숲에서 직접 만든 희망(소원)솟대를 세워 기념으로 남긴다.

한 해 농사의 풍년 기원을 위해 음력 1월14일 마을주민이 모두 모여 논과 밭둑에 쥐불을 놓아가며 소나무를 3방향으로 동아줄을 매어 세우고 창호지로 오곡을 싸서 볏가릿대 위에 매달아 두었다가 음력 2월 1일이 되면 "머슴의 날"이라 하여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술과 음식을 차리고, 농악대들은 흥겹게 춤을 추며, 볏가릿대 주위를 돌며, 흥을 돋구다가 볏가릿대 밑에 제사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

열린 충남-pdf용 2006.8.3 9:23 AM 페이지187

고 볏가릿대를 눕혀 오곡 주머니를 풀어 보아 싹이 트인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짐작하는 민속행사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서 년 초에 도시민과 함께 볏가릿대를 세워 개인, 가족이나 단체의 희망, 믿음, 행복, 사랑을 적은 창호지로 만든 씨오쟁이를 매달아 소원을 비는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볏가리마을은 2002년 농업진흥청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9개 마을로 시작하여, 2003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되어 마을발전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2003년 장려상, 2004년 우수상, 2005년 최우수상을 시상 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으로 2003년 2천550명, 2004년 5천553명, 2005년 8천570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날에도 기업과 어린이 집에서 방문하여 갯벌체험을 하고 바닷가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볏가리마을에는 1년 내내 체험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겨울에는 볏가릿대 세우기, 희망 솟대 세우기 , 쥐불놀이, 굴 체험 등, 봄에는 고사리 뜯기, 야생화 관찰, 오리 농군 입식, 쑥 잡기 등, 여름에는 해수욕, 감자 옥수수 구워먹기, 마늘수확 등, 가을에는 농작물 수확, 망둥어 낚시, 박 요리 체험 등 매우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염전, 갯벌체험 등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는 농촌체험을 통하여 마을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요한 것은 도시민에게 농업체험을 통하여 신뢰를 심어주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직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농업소득을 올려주고,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여 다 함께 잘사는 농촌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마을의 특징이다.

이 마을의 시설로는 볏가리 쉼터(쉼터 및 정보화관), 볏가리 홍보관, 볏가리 숙소, 교육관 및 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체험뿐 아니라 학습 및 회의시설로 활용토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민을 바다로 안내하는 트랙터 버스가 특이하게 만들어 운행을 하고 있으며, 전통 독살을 복원하여 바다 체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마을의 농특산물은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저장력이 좋은 육쪽마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쌀,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붉은 고추, 해양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생강, 황토밭에서 잘 자란 고구마와 검정콩 등이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제철 굴(겨울)도 구입할 수 있다.

벗가리마을은 주5일제를 맞이하여 도시민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시설을 이미 갖추고,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공 제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1세대인 한원석(71) 추진위원장과 2세대인 손영철 사무장 그리고 단결된 마을주민들이 있다. 이 마을의 주민은 62가구 이며, 이 중 47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총 82ha이며, 이 중 논은 47ha로 전체 경지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5ha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구는 1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1세 이상이 70명으로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마을도 고령화와 젊은층의 부족 그리고 취학아동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의 유지 등이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모든 농촌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농촌 의료와 교육 서비스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다. 지속 가능한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바다가 있어 아름다운 마을,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체험마을, 안전한 먹을거리와 싱싱한 영양만점 굴 요리,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내뿜는 깨끗한 공기,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벗가리마을의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과 2005년 충남농어촌발전대상 수상이 주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벗가리마을 연락처 _ 한원석 041-672-7913, 011-9635-9356
손영철 011-454-8295
홈페이지 www.byutgari.go2vil.org